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
	배포일자	2023년 3월 24일(금) 총 6매	
담당 부서	환경기후정책과	담당자	• GCF국제협력팀장 이기욱 ☎440-8586 • 담당자 황영란 ☎440-8598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9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기술 지원하는 국제기구 회의, 국내 최초로 송도서 열려
 - 29일까지,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지원체제(TEC, CTCN) 국제회의 -
 - 혁신적 기후적응 기술정책, 지원사업 규모, 재정기구(GCF)협력 등 논의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양대 기후기술 지원체제의 국제기구인 TEC와 CTCN의 국제회의가 인천 송도에서 연속 개최되고 있다.

*TEC(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 기술집행위원회) :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한 기술 지원체제의 정책 담당 기관, 국가 간 기술협력에 관한 정책적 제언, 활동사항 분석 및 평가, 우수사례 발굴 등을 수행하는 국제기구

*CTCN(Climate Tech. Center & Network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 이행기구, 개도국 대상 기후기술협력 프로젝트의 실질적 이행 담당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은 3월 21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송도 G타워 및 IBS타워에서 TEC회의와 CTCN이사회가 개최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기술지원체제는 기후변화대응 기술(이하 ‘기후기술’)의 개발과 수요국가에 대한 이전을 지원하며,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 기술집행위원회(TEC), 기술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로 구성돼 있다.

이들 기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정사항 중 기술개발 및 이전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운영된다. 특히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매년 두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기술집행위원회(TEC)에서는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19명의 기술 전문가 그룹과 옵저버 약 30명이 참석해 TEC의 운영계획(2023-2027)과 신규 부상하는 혁신적 기후적응 기술 등 중요 기술정책 의제를 논의했다.

이어 3월 24일부터 29일까지는 전 세계 18인의 정부위원과 12인의 비정부위원으로 구성된 CTCN(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이사회에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2022년)에서 결정된 8대 기술지원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표사업 발굴, 기술지원사업 규모확대, 재정기구(GCF 등)와의 협력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3월 28일 CTCN 국가지정기구(NDE) 등 참가자 40~50명은 수도권매립지 현장을 둘러보고 폐기물처리 및 자원화 관련 기술을 경험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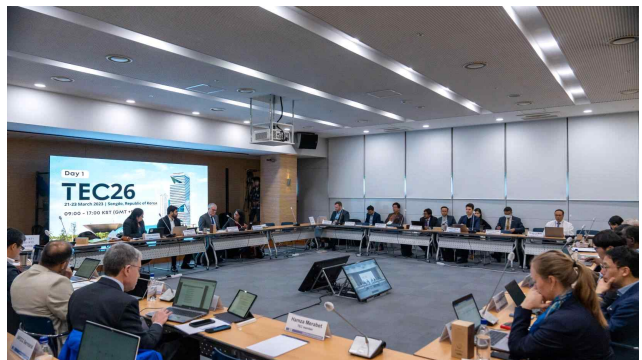
CTCN 협력연락사무소는 국가 간 기후기술 협력사업을 지원하고, 기술 수요국 정부관계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인 기술 협력 활동을 수행 중이다

김인수 시 환경국장은 “이번 TEC 회의와 CTCN 이사회는 유럽 외

지역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CTCN 협력연락사무소 개소 등 우리나라의 그동안 기후기술협력 기여를 고려해 결정된 만큼 의미가 크다”고 소개하며, “인천시는 앞으로도 기후기술 관련 국제회의 유치·지원을 통해 국내 우수 기후기술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플랫폼으로 발돋움 할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 시가 국내 기후기술 산업 육성의 전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7월 글로벌 기후기술협력을 선도하고, 국내 우수 기후기술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CTCN 협력연락사무소를 송도에 유치·개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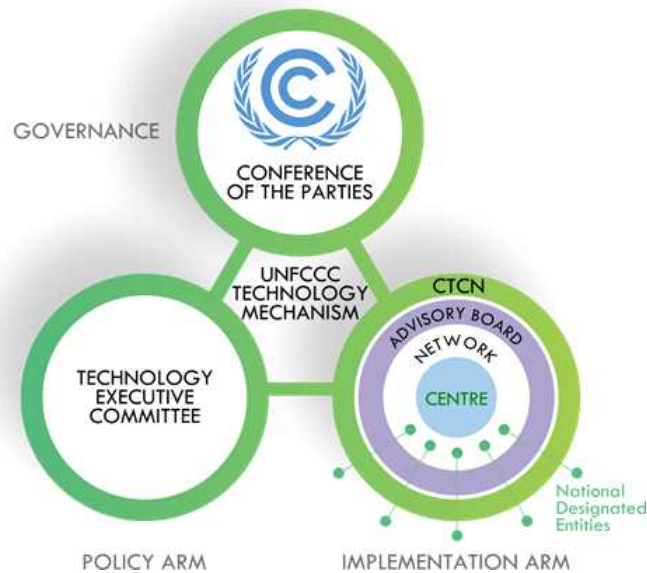
- 붙임 1.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술메커니즘 개요
2. CTCN 협력연락사무소 개요
3.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2022년) 8대 기술지원 분야



▲ 2023.3.21.(월)~3.23.(목)까지 개최되고 있는 TEC(기술집행위원회) 회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술메커니즘 개요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메커니즘 체계도 >

(출처: 유엔기후변화협약 홈페이지)

- (목적)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의 기술개발 및 이전 활성화
 - (경과)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설립 결정('10년)
 - (구성) 기술집행위원회(TEC),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의 2개 기구와 각국 기후변화대응 기술협력 지정창구(NDE)로 구성
 - (기술집행위원회) 국가 간 기후기술 개발 및 이전에 관한 각국의 활동사항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적 제언 역할 수행
 -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국가 간 기술협력을 이행하는 국제기구로, 개도국 기술지원·역량강화 등 실질적인 기술협력 활동 지원
 - (국가지정창구) 국가 간 기술협력 사업추진 등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간 기술협력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국가별 지정창구
- ※ 과기정통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메커니즘 국가지정창구(NDE)이며, 기술 메커니즘 기구 중 CTCN의 이사국(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 연혁

- 「대한민국과 유엔환경계획 간 CTCN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 설립에 관한 협정」 체결('21.09.27)
-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천광역시 및 유엔환경계획 간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 행정과 재정에 대한 약정」 체결('21.10.07)
- CTCN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 공식 개소('22.7.21.)

□ CTCN 협력연락사무소 개요

- (소재 / 운영기간) 인천 송도 G-타워 / ~'26. 10. 7.
- (목적) 국내 기후기술의 해외이전을 확대하고 GCF(Green Climate Fund, 녹색기후기금) 등 재정기구와 협업하여 기후기술협력을 선도
- (예산규모) 5년간 총 125억 원 (25억 원/年)
※ 과기정통부가 총 100억 원(20억/年), 인천시가 총 25억 원(5억/年) 지원

□ 주요 활동

- (재정기구 협력) 개도국의 기술지원 수요를 바탕으로 기술의 해외 이전 사업을 위한 유엔 재정기구(GCF 등)와의 협력을 지원
- (개도국 정부대표자 역량강화) 기후기술 교육 지원, 네트워킹 행사 개최 등을 통해 각국의 기후기술 협력 대표단의 역량을 강화
- (기후기술 실증) 기술보유 기관 및 현지 이해관계자를 연결하는 협력 사업을 운영하여 기후기술의 이전 및 현지 실증을 지원
- (개도국 기술지원) 개도국의 기후기술 수요를 바탕으로 기술 보유 기관을 탐색·매칭하고, 기술이전과 추가 R&D를 지원

- (수립배정)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기술메커니즘 기구 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TEC-CIQN 공동업무계획 출범 및 8대 기술지원 분야 확정
- (구성) 신규 기술지원 분야 2개(기술로드맵·디지털화)와 기존 기술지원 분야 6개(국가 혁신시스템·물-에너지-식량·에너지·비즈니스 및 산업·기술수요평가)로 구성
 - ① 기술로드맵(technology road maps): 국가적응계획,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등 국가 계획과 연계할 수 있는 기술개발 및 도입을 위한 기술로드맵 수립 지침
 - ② 디지털화(digitalization): 기후변화대응 기술협력을 위한 머신러닝 기술 활용 사례 분석 등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기후변화대응 해결방안
 - ③ 국가혁신시스템(national systems of innovation): 기후변화대응 기술협력 확대를 위한 국가 정책·제도·규제 프레임워크 수립 및 개선방안
 - ④ 물-에너지-식량 시스템(water-energy-food systems): 농업분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스마트 농업기술 개발 및 이전방안
 - ⑤ 에너지 시스템(energy systems): 신재생에너지 기술(그린수소 등) 및 에너지믹스를 포함한 에너지 효율화 기술에 대한 국가 간 공동 실증연구 기획·추진
 - ⑥ 건물 및 인프라(buildings and infrastructure): 저탄소 자재를 활용한 건축 및 건물 에너지효율화 시스템 사례분석 및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 ⑦ 비즈니스 및 산업(business and industry): 철강 및 시멘트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생산 공정 및 제품 소개, 산업계 탈탄소 전환 방안
 - ⑧ 기술수요평가(technology needs assessment): 개도국이 자국의 기후 기술 이전수요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평가체계 구축